

말 씀 나 놈 ..... 다 같 이  
※ 아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가족 모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나이순).

1.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찬 송 ..... 주 안에 있는 나에게(370장) ..... 다 같 이

1. 주 안에 있 는 나에게 딴 근심 있 으려고  
2. 그 두려움 이 변하여 내 기도 되 었 고  
3. 내 주는 자 비하셔서 늘 함께 계 계니  
4. 내 주와 맷 은 언약은 영 불변하 시고  
  
십자 가冕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 네  
전날의 한숨을 변하고 내 노래 되었 네  
내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 주하시 네  
그나 라가 기까지는 보호하시 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리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한가위 가정예배



2020년

## 예 배 순서

예 배 사 .....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 다 같 이  
찬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엘 예 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 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 독 문 ..... 1(시편 1) ..... 다 같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좋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공 동 기 도 ..... 가족 중에서

은총을 베풀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위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서 5:13-16 ..... 다 같 이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